

국회로 달려간 두 전도사



1년 전, 윤석열 씨가 전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던 순간, 국회로 향한 계엄군은 거침없이 밀려 들어왔다.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군인의 총구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벙커1교회 최세론 전도사와 이용수 전도사도 그 대열 한가운데 서 있었다.

두 전도사는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 없이 현장으로 향했다. 최세론 전도사는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응답은 얻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해 문밖을 나섰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용수 전도사도 “자려고 준비하는데, 소식을 접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라이브를 통해 ‘국민 여러분, 국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에 도착해 국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경찰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며 “국회 앞마당에서 군인과 맞닥뜨렸을 때도 군인들이 국민을 진압하는 데 열을 올리기보다 그냥 시늉만 했던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1년이 흘렀지만,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 현실을 두 전도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최 전도사는 “내란 주동자들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은 없다. 그러나 정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지귀연 등이 지금 법정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도사는 “특검 진행 상황을 보면 많이 답답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기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 속에서 일부 극우 개신교는 여전히 윤석열 씨를 옹호하며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 치켜세웠다. 이에 대해 이 전도사는 “참담하다. 신앙과 고집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그들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교회가 제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며 “상식을 무시하는 게 신앙의 척도인 양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영적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전도사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자 교역자로서 한국 사회에 송구스럽다”며 “반공주의, 서북청년단 등에 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이념적 한계를 직면하는 역사적 신앙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 보도)

2025년 12월 7일
통권 13권 49호
대림절 2주일

2025년 벙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벙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양미혜
전도사 오광석 최세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는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빛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이 전하는 반가운 소식 8:12 (복한 성경)

주일예배순서

찬양

인도 오광석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윤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사회 김경은 집사

징울림 Slet prayer *		정방남 원로
신앙고백 Creed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Hymn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다함께
기도 Prayer		한인수 집사
독서 Bible reading	마태복음 2:14~18	사회자
설교 Sermon	영아 학살과 12.3 내란	김용민 목사
광고 News		사회자
파송곡 Closing Song *	교회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		김용민 목사

■ 병κε교회 신앙고백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성경 마태복음 2장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6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라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 찬송 그 어린 주 예수



1. 그 어린주 예수놀 자리없 어 그 귀하신 몸이 구
2. 저 육축소 리에아 기잡께 나 그 순하신 예수우
3. 주 예수내, 곁에가 까이게 서 그 한없는 사랑늘

유에 있 네 저 하늘별 들이 반 짝이는 데
시지 않 네 그 귀한애 수를 나 사랑하 니
배푸 시 고 은 세상아 기들 다 품어 주 사

그 어린주 예수 폴 위에 자 네
새 날이 밤 도 록함께 하 소 서
주 품안 에 안겨 살 게 하 소 서 아 멘

■ 오늘 설교 요약

예수 탄생 시 헤롯왕의 영아 살해와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내란 시도는 역사적, 구체적 맥락은 다르나, 권력 유지를 위한 극단적인 폭력 동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유관성을 가집니다.

두 사건 모두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 상실을 막기 위해 합법적, 윤리적 경계를 무시하고 폭력을 수단

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헤롯의 영아 살해는 잠재적인 왕권 위협(아기 예수)을 물리적 살상으로 원천 봉쇄한 행위입니다.

12.3 계엄 시도는 **현실적인 위협(국회의 탄핵)**을 피하고자 **국가 폭력(군경 동원)**을 이용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는 비록 직접적인 살상 명령은 없었으나, 대규모 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을 전제한 내란 행위로 평가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건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현실적 살상 또는 살상을 전제한 폭력을 동원함으로써 윤리 및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유관성을 공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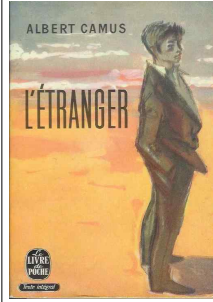
이 폭력을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셨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내란은 복이었습니다”



올 1월 우리교회에서 강론한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김용태 신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를 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과 사법부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점, 80년 만에 이루어진 검찰 개혁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김 신부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4대손이자 14명의 순교자가 있는 천주교 성인공과 출신이다. 김 신부는 지난해 12월 9일 대전 한 성당에서 열린 강론에서 요한묵시록(요한계시록)의 ‘붉은 용’ 대목을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악마라고도,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땅에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다. 그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을 우리는 용산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또 “악마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12월 3일 밤에 지랄발광하였다”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이라니, 이는 친위쿠데타이며 국민을 향한 반란이었다”고 규탄했다. 김 신부는 지난 1년간 시민들과 함께한 심정을 “광야를 건너던 모세”에 비유했다. 그는 “계엄 직후 사람들은 안도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졌다”며 “저는 시민들에게 ‘결국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모세처럼 ‘정말 잘 돼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세도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의 불평과 두려움을 함께 견디며 이끌었다. 저 역시 함께 걸으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신앙과 연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를 떠올리며 “항당했지만 동시에 사법부가 스스로 윤석열 세력과 얽혀 있음을 자백한 사건이었다”고 했다. “사법부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라는 믿음이 깨졌고, 지금 드러나는 대법원과 현재의 행태를 보면 단순한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을 함께 획책한 세력이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신부는 “윤석열의 내란 시도가 오히려 그의 정권 초기 종식을 가져왔고, 사법부의 실체와 개혁의 필요성을 결정적으로 드러냈다”며 “광복 80년 동안 못했던 검찰 해체와 사법개혁의 동력이 지난 1년 사이에 생겨났다”고 평가했다. 김 신부는 특히 윤석열 정권의 ‘전쟁 획책’ 의혹을 가장 중대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외환을 조작해서까지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은 내란보다 훨씬 심각한 악마적 범죄”라며 “전쟁은 인권·생명·평화가 모조리 사라지고 폭력과 혐오가 정당화되는 지옥의 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술·무속 문제와 관련해 “무속 자체가 아니라 이를 권력 욕망 실현의 도구로 이용한 탐욕이 문제”라며 “이 시대의 가장 큰 패악은 사람들의 믿음을 어지럽히는 ‘미신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처벌과 사법규정이 이루어져야만 제2의 윤석열과 제2의 김건희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교분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와 종교는 등대와 배처럼 협력해야 한다”며 “분리돼야 하는 것은 정치권력과 종교의 결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패한 정치인 옆에는 반드시 타락한 종교인이 있다”며 종교의 권력화를 경계했다.

김목사와 책읽기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카뮈의 ‘이방인’에서 모리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프랑스 차하의 북아프리카 알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던 프랑스인인데요. 그는 “왜 그랬는가”라는 모든 도덕적 질문 앞에서 침묵하거나 무관심으로 답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고, 살인을 저지르기도 후회하지 않으며, 마지막에는 “세상이 나를 향해 분노의 함성을 질러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죄, 이웃, 죽음 앞에서조차 아무 감각이 없는 현대인의 초상을 보여 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 속에서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하나님 나라의 ‘타자성’을 드러내기보다, 이기적 안녕과 일상의 평온만을 원하는 종교적 이방인이 되어 버렸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설 속 재판 장면입니다. 법정 은 살인 행위 자체보다도 모리스가 장례식 때 울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분노합니다. 즉 “그가 얼마나 나쁜 범죄자인가”보다 “우리의 도덕 기준에 얼마나 어긋나는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은 때로 교회가 죄인 그 자체보다 ‘우리 방식대로 슬퍼하지 않고, 우리 규범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더 쉽사리 정죄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복음의 중심인 은혜보다는, 공동체가 만들어 낸 도덕 코드와 감정 표현 양식을 절대화하여 사람을 배제할 때, 우리는 소설 속 재판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리스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삶이 근본적으로 부조리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합니다. 그는 허무 속에서도 “지금 여기”의 태양과 바다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며, 초월적 의미 없는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을 말하며면서도 실제 죽음 앞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공포, 혹은 싹값의 위로에만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은 “우리는 정말 부활과 심판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종교적 언어로 적당히 허무를 덮어 두고 있는가”를 아프게 묻습니다. 이 소설은, 하나님 없는 부조리의 정직함조차 능가하지 못하는 피상적 신앙으로 머물고 있지 않으니, 현대 그리스도인이 깊이 회개하며 점검하도록 자극합니다.

더 나아가, 모리스의 점검의 무감각은 단순한 냉담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의 극단입니다. 그는 어떤 관계도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과 슬픔마저 “의미 없음”으로 축소합니다. 이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관계’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되물입니다.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마 2:1~12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느헤미야서 6:1-9 하나님의 기준세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본문	욥기 25장
설교	빌닷의 세 번째 말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화	출애굽기 16장 만나와 메추라기
수	사무엘상 12:1~15 예수, 우리 왕이여
목	마태복음 7:7~12 황금을
금	마태복음 7:13~20 열매를 보면 안다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지하철 3호선 삼송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마을버스 삼송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창조 이야기를 기독교인만의 신앙고백으로 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관계 형성을 해야 하는지로 흐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믿는 분들은 지구 나이 6천 년이라고 하고, 과학은 45억4천만년이라고 하지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까요?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연합성가대 연습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상계동 열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다길 6 열림교회, 7호선 수락산역 4번 출구에서 859m)

26일 평화나무 후원행사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금) 오후 4시부터 사단법인 평화나무 후원행사가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와 함께 김성희 최혁진 의원, 민동기 기자, 박영식 앵커 등이 출연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연말 일정

- 12. 24 수요예배 겸 성탄절 전야 모임
- 12. 25 (오전 예배 없음) 오후 연합성가대 칸타타
- 12. 31 새해 축복 기도(10시) 및 송구영신예배(11시)

새해 갱신 등록 안내 기존 교인의 갱신 등록 절차가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교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라온 링크로 접속해, 성함, 전화번호 등만 기록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결과 공동의회에서 ①'키라반 구입 관련 의결'(찬성 29명, 반대 1명) ②'추수감사주일 변경'(추석 연휴 다음주간에 17포 동의)을 결정했습니다.

새해 운영위원회의 개최 새해 운영위원회의가 5~6일 강원도 양양에서 여덟분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21일 세례식 신청 받습니다 벙커1교회 세례교인이 되고자 하는 교우는 오광석 전도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11월 헌신하신 분들

- 2일 서태원 교우 홍어무침, 무화과 말림
박기운·구재숙 집사 풀
- 16일 김용민 목사, 고구마
전 교우회, 김장 재료바·식사 비용
사이먼·윤혜정 집사, 육개장
목련향기 교우 떡
이영하 교우 떡
김경송 교우, 풀
이경현·이혜정 집사 음료수
- 23일 서태원 교우 사막땅콩
- 30일 신비롬 목사 부친 사과
양미혜 장로 떡
윤혜정 집사 벙커업 점심식사 비용
서자유 집사 크리스마스 트리

혹시 누락되신 분이 있다면 다음주에 게재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공동식사 헌물 농협 기독교 신우회에서 우리농산물로 만든 도시락을 헌물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예배 후 인사 예정)

지난달 교회 십일조 보고 11월 인권연대에 보내는 십일조는 1,830,100원입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2월 교회 십일조 교회개혁실천연대	12월 안내 청년부	지난주 현금액 1,571,000원
------------------------	---------------	-----------------------